

구약논단

제 16권 4호(통권 38집) 2010년 12월 31일

강 승일(장신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아가 번역의 개정을 위한 주석적 제안	93
본 논문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아가에서 개정을 고려할 만한 구절들을 주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개정이 필요한 근거와 필자 나름의 사역을 덧붙이고, 도움이 되는 경우 다른 새로운 한글 번역본들을 대조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개역개정」 아가 번역 에서 일부는 수정 또는 난하주(혹은 난외주)에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Kang, Seung-Il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Translation of the Song of Songs in the <i>New Korean Revised Version</i>	93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아가 번역의 개정을 위한 주석적 제안

강 승일 | 장신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아가에는 50여 개의 소위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서 아가를 정확히 번역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아가는 고난도의 시적 기교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제대로 살려서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필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위탁을 받아 아가 주석을 집필하면서 주석의 기준 번역본으로 사용한 「개역개정」의 아가 번역에 개정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럿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역개정」아가의 일부 구절들은 히브리어 원문이 지닌 시적 기교나 시적 병행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구절들의 우리말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며, 또한 아가에 번역된 몇몇 우리말 단어들은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양한 이유로 고쳐 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말 단어 역시 부득불 새로 옮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필자는 「개역개정」에서 개정이나 난하주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아가의 구절들을 각각 그 근거와 그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나름대로의 사역을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도움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구절을 다른 한글 우리말 성서 번역본들은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비교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개역개정」은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 성서 번역본이므로, 이 책의 번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¹⁾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며, 「개역개정」의 권위와 번역의 전반적인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필자가 제안하는 내용들은 만일 「개역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개정 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필자의 번역이 옳다거나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고 싶다.

2.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구절들

1) 아가 1장 5절, 13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아 1: 5)

게달(גַּדַל)이라는 말의 어근(גָּדַל)은 “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게달이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 사용된 것은 상반절에 있는 “내가 비록 검으나”라는 말을 이어받기 위한 의도적인 시적 기교로 볼 수 있다. 성경에서 게달은 북부 아랍 부족들 중 하나이다(창 25: 13; 사 42: 11; 60: 7; 렘 49: 28; 겔 27: 21). 게달의 장막은 흑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이 여인의 피부처럼 검게 보였을 것이다.

마소라 본문과 여러 고대 번역본들이 네 자음 **גלמל**를 “솔로몬”으로 읽고, 「개역개정」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러 주석가들은 바로 앞의 게달과 시적 병행을 이루도록 “살마”(Salmah)로 읽기를 원한다.²⁾ 살마는 고대 근

1) 국내 구약학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구약논단」에 성경번역의 문제를 다룬 논문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아쉽다. 그러한 글 중 하나는 이 동수, “호세아 4: 4 후반절의 본문과 번역,” 「구약논단」 제 1집(1995년 9월), 233-258쪽이다.

동문헌과 유대교의 타르굼에서 남부 아랍 부족들 중의 하나로 나타난다(타르굼 옹켈로스 창 15: 19; 민 24: 21). 그러나 어떤 학자는 “솔로몬”을 그대로 따르면서 앞의 “게달의 장막”은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에서 “검다”는 표현과 병행이 되고, “솔로몬의 휘장”은 “아름답다”는 표현과 병행을 이룬다고 보기도 한다.³⁾ 그리고 「개역개정」도 이러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히브리어 시의 특성상 병행은 매우 중요하며, 시적 병행은 같은 행에 위치한 קָנָה 와 נָשָׂא 두 단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נָשָׂא 를 “솔로몬”이 아니라 “살마”로 옮기는 것이 히브리어 시의 병행법을 더 잘 반영하는 번역이 된다.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아 1: 13)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개역개정」의 번역에는 동사 נָשָׂא (알린/밤을 보내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동사는 “밤을 보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 동사의 주어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먼저 이 동사의 주어를 몰약 향주머니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몰약 향주머니로다. 그것은 내 가슴 사이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가 된다. 이 경우 아 1장 13절의 하반절은 여자의 가슴 사이에서 밤새 몰약 향주머니가 향을 발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사의 주어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몰약 향주머니로다. 그는 내 가슴 사이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밤을 보낸다는 다소 성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⁵⁾ 문맥과 내용을 고려하면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M. H. Pope,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7C),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77), 320쪽; M. V. Fox,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100-102쪽.
3) P. W. T. Stoop-van Paridon, *The Song of Songs: A Philological Analysis of the Hebrew Book*, (Louvain: Peeters, 2005), 53쪽.
4) 실제로 「공동」 및 「공동개정」은 “살마”로 옮겼고, 「새번역」에서는 난하주에 “살마”로도 옮길 수 있음을 표기해 주었다.
5) 김 창주는 아가의 연인들의 사랑을 창세기의 동산 이미지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김 창주, “에로스 동산과 에덴 동산,” 「구약논단」 제 25집(2007년 9월), 123-127쪽.

2) 아가 2장 4절, 7절, 8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아 2: 4)

“잔칫집”으로 번역된 말은 직역하면 “포도주의 집”(בֵּית הַיַּיִן 벤 하야인)이다. 구약성경에 이와 똑같은 문구는 나타나지 않지만 비슷한 문구들은 있다. 예를 들어, “포도주를 마시는 집”(에 7: 8), 그리고 “(술을) 마시는 집”(렘 16: 8; 전 7: 2) 등이다. 「개역개정」은 이러한 장소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일종의 연회장으로 이해하여 “잔칫집”으로 옮긴 것 같다. “포도주의 집”을 선술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러한 선술집에서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포도주의 집”은 남자가 여인을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갔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포도주의 집”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아가의 두 남녀는 공개적인 장소보다는 외진 곳에서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포도주의 집”은 잔칫집이나 연회장 같은 개방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⁶⁾ 단지 두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며 서로의 사랑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장소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잔칫집”은 그냥 원문을 직역하여 “포도주의 집”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많은 성경과 주석가들이 「개역개정」과 마찬가지로 אֵילָן(디글로)를 “그의 깃발”로 옮기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정확하지 않다. 어떤 학자들은 아가드어 다갈루(dagalu, 보드)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의 눈길” 또는 “그의 생각, 의도” 정도로 이해한다.⁷⁾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군대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깃발”의 이미지는 남녀의 사랑이 무르익는 에로틱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절의 하반절은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은 사랑이로구나”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개역개정」의 난하주에 이러한 번역의 가능성을 언급해 주면 좋겠다. 우리말 성서 번역본 중에서는 「공

6) Fox, *Song of Songs*, 108쪽.

7) R. Gordis, “The Root אֵילָן in the Song of Songs,” *JBL* 88 (1969), 203-204쪽; Pope, *Song of Songs*, 376-377쪽.

동개정」이 이와 비슷한 견해를 취하여, 아 2장 4절을 “사랑의 눈짓에 끌려
연회석에 들어와”로 번역하였다. 영어 성경 NRSV도 마찬가지로 “his
intention toward me was love”로 옮기고 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아 2: 7)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하는 간청은 아 3장 5절과 아 8장 4절에도 반
복되고 있다. 특히 아 2장 6절과 같은 내용이 아 8장 3절에도 나타난다. 노
루와 들의 암사슴으로 부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부탁한다”
는 히브리어로는 “맹세하도록 하다”는 의미이다. 부탁보다는 더 강한 어조를
담고 있다. 여하튼 노루와 암사슴으로 맹세하게끔 한다는 말은 무척 난해하
다. 이에 대해서 고디스(R. Gordis)는 기발한 설명을 제시하였다.⁸⁾ 히브리
어로 “노루와 들의 암사슴”은 אֵי בַּאֲלוֹת הַנָּחַשׁ(비출라오트 오 브
아엘로트 하싸데)로 되어 있다. “노루들”을 가리키는 첫 번째 단어 אֵי
구약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별칭인 “야훼 츠바오트”(אֱלֹהֵי צְבָאוֹת
만군의 여호와)의 츠바오트(צְבָאוֹת)와 철자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들의
암사슴들”을 가리키는 두 번째 문구인 “아엘로트 하싸데”(אֵי בַּאֲלוֹת הַנָּחַשׁ)는 야
훼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인 “엘 샤다이”(אֱלֹהֵי שָׁדַי)와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

“야훼 츠바오트”(אֱלֹהֵי צְבָאוֹת)라는 말은 「개역개정」에는 “만군의 여호와”
로 되어 있지만, 실은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야훼 하나님의
별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야훼 하나님의 전사(divine warrior)로
서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명칭이다.

“엘 샤다이”(אֱלֹהֵי שָׁדַי) 또는 샤다이는 「개역개정」에서 “전능의 하나님” 또
는 “전능자” 등으로 번역된다. 칠십인역 그리스어 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παντ
οκράτωρ(판토그라토르/전능한), 그리고 라틴어 역본에서는 omnipotens(옵
니포텐스/전능한)로 옮겼고, 이에 따라 영어 성경도 주로 “God Almighty”

8) R. Gordis, *The Song of Songs: A Study, Modern Translation, and Commentary*,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1954), 26-28쪽.

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은 아마도 שָׂדַי(샤다이)를 "파괴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שָׂדַד에서 온 것으로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외에 몇 가지 다른 가능성들이 있다. 첫 번째로 샤다이가 "들판"을 의미하는 שָׂדֶה(샤데/들판)에서 왔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샤다이는 "기슴"을 의미하는 שָׂדֶם(샤드/기슴)에서 기원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창 49장 25절에서 샤다이(「개역개정」에는 "전능자")가 "젓"(שָׂדֶה)의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샤다이는 "산"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šadu(샤두)에서 온 것으로 이해한다. 그 근거로 왕상 20장 23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다른 근거들이 있으나, 샤다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좋겠다.

그 여인이 어떠한 간에, 재미있는 것은 아 2장 7절의 "노루와 들의 암사슴"은 히브리어 발음상 야훼 하나님의 대표적인 별명들 중 "야훼 츠바오트"(יהוה צבאות)와 엘 샤다이(אל שדי)를 연상케 한다는 점이다. 아가의 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별명들과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가의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는 강력한 요청인 것이다.

사실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들의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시적 표현을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본 절 상반절의 경우

예루살렘 딸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게 맹세해다오

정도로 옮기고, 난하주에 "노루"와 "들사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발음상 하나님의 별칭인 "만군의 여호와"와 "전능의 하나님"을 각각 연상케 한다는 사실을 표기해 주면 독자들이 히브리어 시적 표현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본 절 하반절의 「개역개정」 번역인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는 마치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고 있으니 그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이는 אֲהַבְתִּי(하아하바/그 사랑)를 1

인칭 소유 대명사를 추가하여 “내 사랑”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어의 의미 그대로 “사랑”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남녀의 사랑은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다. 우선 남녀가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단계에 이르러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랑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아가의 여인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든 상황과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 하반절의 “내 사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냥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아 2: 8)

본 절에 대한 「개역개정」의 번역은 히브리어의 시적 병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절의 처음은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קוֹלִי יִקְרָא
 וְרָאִיתָ אֶת־הַרְרֵי

「개역개정」에서 “목소리”로 번역된 첫 단어 *qol* (콜/소리)은 때로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종의 명령처럼 사용될 수 있다.⁹⁾ 특히 바로 다음 문장에 이어지는 “보라”(וְרָאִיתָ, 힌네-제)와의 병행을 고려하면 이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보다는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로다”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에 어울리게 וְרָאִיתָ (힌네-제 바)도 “보라, 그가 오고 있구나”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절의 첫 줄은 다음처럼 옮길 수 있다.

9) 이러한 용법에 대하여는 P. Joü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rans. and rev. T. Muraoka,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1), § 162e를 보라.

3) 아가 3장 10절, 11절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로다
보라, 그가 오고 있구나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아 3: 10)

본 절은 솔로몬의 가마를 묘사하고 있다. 하반절에는 히브리어로 **אֲהַבָּהּ אֶת בָּתוּלוֹת יְרוּשָׁלַיִם**(밋브노트 여루살라임/예루살렘 딸들로부터)라는 어구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치사 **אֶת**(민/-로부터)을 그 앞의 단어 **אֲהַבָּהּ**(아하바/사랑)와 연결시켜 한 단어의 일부분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되면, **אֲהַבָּהּ**(아하바/사랑)를 **אֲהַבָּהּ**(하브님/혹단) 또는 더 가능성이 높은 **אֲהַבָּהּ**(아바님/돌, 보석)으로 고쳐 읽을 수 있게 된다.¹⁰⁾ 특히 솔로몬의 가마 안에 사랑이 엮여 있다는 말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번역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개정」처럼 “예루살렘 딸들”은 뒤의 아 3장 11절에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아 3장 10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옮겨볼 수 있다.

그 내부에는 보석들이 박혀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아 3: 11)

앞서 언급한 대로 「개역개정」 아 3장 10절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을 아

10) R. E. Murphy, *The Song of Song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Canticles or The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149쪽.

3장 11절의 서두에 붙여서

예루살렘 딸들이 나오라
시온의 딸들이 솔로몬 왕을 보라

로 옮기는 것이 “예루살렘 딸들”과 “시온의 딸들” 사이의 병행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번역일 것이다.¹¹⁾

4) 아가 4장 8절, 9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너라(아 4: 8)

본 절에 두 번 등장하는 “나와 함께”는 마소라 본문의 **יחד**(이티/나와 함께)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 고대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יחד**(에티/와라)로 읽고 있다. 본문 비평의 원칙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는 어려운 읽기를 선호하는 *lectio difficilio potior*의 원리가 잘 들어맞는다. 이를 반영하여 본 절의 상반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¹²⁾

레바논에서부터 오너라, 신부야
오너라, 레바논에서부터 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아 4: 9)

11) 김 영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서울: 하늘기획, 2010), 173쪽.

12) 「공동」 및 「공동개정」, 그리고 「새번역」도 이와 같은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라는 우리말 표현은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직역하면 “너의 한 눈으로”인데, 내 마음을 빼앗는 데는 눈 하나면 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의 눈길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의미이다.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도 마찬가지로 목걸이 전체가 아니라, “목걸이에 달린 여러 보석들 중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남자는 여자에게 첫 눈에 반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본 절의 하반절을 다음과 같이 옮길 것을 제안한다.

5) 아가 5장 8절, 13절

너의 눈길 하나만으로도
네 목의 보석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아 5: 8)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뒤에 לֹא יִדְבַרְנָהּ(마 타기두 로)라는 문장이 있다. 문자 그대로는 “그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는 의문문이다. 그러나 콕스는 여기서 의문사 לֹא(마/무엇)를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게 말하지 말아라”로 번역한다.¹³⁾ 즉 자신이 사랑에 미쳐 남자를 찾아 밤길을 헤매다가 순찰자들에게 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이를 알리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법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본 절의 하반절은 아래와 같이 옮길 수 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겠느냐

13) Fox, *Song of Songs*, 146쪽.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아 5: 13)

“향기로운 풀언덕”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향수의 망대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뺨은 향수로 가득 찬 망대처럼 향이 넘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향수의 망대들”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망대들”(מִּגְדָּיִם מִקְטֹרֶת)을 70 인역의 읽기를 따라서 “크게 하는, 내는”(מְגַדְּלֵי מִקְטֹרֶת)으로 읽기를 원한다.¹⁴⁾ 이렇게 읽으면 “향기를 뺨어내는”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하반절과의 시적 병행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번역이 더 문맥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본 절의 상반절은

그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아서
향기를 뺨어내는구나

정도로 옮겨볼 수 있겠다.

6) 아가 6장 4절, 9절, 12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아 6: 4)

디르사는 오프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도시이다. 디르사가 본 절에 등장하는 이유는 디르사가 예루살렘과 쌍벽을 이루는 북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다는 사실 이외에도 히브리어로 ‘기쁨’을 나타내는 어근 צַר(라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¹⁵⁾ 실제

14) Murphy, *Song of Songs*, 149쪽.

로 다른 고대의 역본들은 디르사를 지명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본 절에서 예루살렘과 시적 병행을 이루고 있으므로,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는 히브리어 נִיטְלָוּתָם אִמָּה קַנְיָה(아움마 칸 니드갈로트)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형용사 אִמָּה(아움마/당당한)는 합 1장 7절에서 두려운 갈데아인들의 위엄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었다. 「개역개정」은 נִיטְלָוּתָם(니드갈로트)를 “깃발”을 의미하는 אִתְּ(데겔/깃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자를 묘사하는 내용에서 갑작스럽게 깃발을 가진 군대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아 2장 4절에서처럼 נִיטְלָוּתָם(니드갈로트)를 아카드어 다갈루(dagālu, 보다)와 연관된 것으로 보아서, “눈에 띄는, 뛰어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본 절의 히브리어 문구는 “가장 뛰어난 자만큼 경이롭구나” 정도로 옮겨볼 수 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구나(아 6: 9)

「개역개정」의 번역은 본 절 서두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부분을 정확히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유일한 그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다시 말하면, 아가의 남자에게는 무수한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 이 여인만이 자신의 전부라는 의미이다.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라는 것도 본 절이 강

15) O. Keel, *The Song of Songs: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 F. J. Gais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213쪽.

조하는 바가 아니다. 본 절이 말하는 바는 그녀가 외동딸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녀는 유일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를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유일 무이한 자” 정도로 옮기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아 6: 12)

본 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전승 과정 중에 상당 부분 손상되었다. 고대 역본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손상된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문 재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으로 나름대로 번역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당신이 나를 귀족과 함께 마차에 타게 했다는 것을

만일 이러한 번역이 옳다면, 이 구절에서 여자는 남자의 칭찬에 화답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을 귀족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와 놀라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7) 아가 7장 6절, 9절, 11절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아 7: 6)

「개역개정」의 번역 “사랑아”는 여인을 가리키는 호칭처럼 들린다. 히브리어로는 그냥 “사랑”(אהבה 아하바)이다. 그렇다면 남자는 여기서 사랑 그 자체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단락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부분이므로, 문맥상 אהבה(아하바/사랑)를 의인화된 사랑, 즉 여인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리스어, 라틴어, 시리아어 역본들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אהבה(아하바/사랑)를 모음을 바꾸어서 수동 분사 אהבה(아후바) “사랑을 받는 자”로

읽으면 더 의미가 분명해진다.¹⁶⁾ NRSV도 이를 반영하듯 “O loved one”으로 옮기고 있다.

「개역개정」에 “즐겁게 하는구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בָּתְּאֵנֻם (바트아누김)은 직역하면 “기쁨으로” 정도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히브리어 자음 ת의 중차 탈락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בָּתְּאֵנֻם (바트 타아누김)으로 읽으면 “기쁨의 딸”이 된다.¹⁷⁾ 아 7장 1절의 בָּתְּאֵנֻם (바트 나딤/고귀한 자의 딸), 그리고 아 7장 4절의 בַּת־רַבִּי (바트 라빔/큰 자의 딸)과 같은 표현이다. 따라서 본 절을 다음과 같이 옮겨볼 수 있다.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당신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오 사랑 받는 자여, 기쁨의 딸이여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아 7: 9)

“자는 자의 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שֵׁפֶתַי שֵׁפֶתַי (시프테 여쵸님)을 직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여러 주석가들은 그리스어 역본들과 시리아 역과 마찬가지로 שֵׁפֶתַי שֵׁפֶתַי (시프테 여쵸님)을 שֵׁפֶתַי שֵׁפֶתַי (시파타이 웨쉴나이/나의 입술과 나의 이)로 고쳐 읽는다.¹⁸⁾ 「공동」 및 「공동개정」과 「새번역」도 이렇게 고쳐 옮겼고, 「새번역」은 또한 각주에 “잠자는 사람들의 입술”이라는 번역도 가능함을 알려 주고 있다. NRSV도 이와 유사하게 “lips and teeth”로 옮겼고, 각주에 히브리어로는 “lips of sleepers”로 되어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개역개정」의 “움직이게 하느니라”는 아마도 דָּבַדְּ (도뵍)을 דָּבַדְּ (중얼거리다)에서 온 것으로 이해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דָּבַדְּ (도뵍)은 같은 절의 דָּבַדְּ (홀레크/흘러내려서)와의 병행을 고려하면 דָּבַדְּ (도브/호르다)에서

16) Murphy, *Song of Songs*, 183쪽.

17) 윗글.

18) 윗글, 184쪽; D. Garrett/P. R. House, *Song of Songs. Lamentations* (WBC 23B),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4), 237쪽.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본 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부드럽게 흘러내려
나의 입술과 나의 이를 타고 흐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아 7: 11)

여자는 남자에게 들로 가서 함께 밤을 보내자고 요청한다. 들은 둘 만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로 최적의 공간이다. “동네”로 번역된 **קִפְרִים**(케파림)은 마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헤나(고벨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¹⁹⁾ 앞서 아 1장 14절과 아 4장 13절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인이 남자에게 들로 가자고 요청하는 이유는 둘 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들로 간 다음에 동네로 가서 유숙하자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동네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벨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²⁰⁾ JPS Tanakh도 **קִפְרִים**(케파림)을 이렇게 이해하여 “among the henna shrubs”로 옮기고, 각주에 “in the villages”라는 번역도 가능함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은 다음과 같이 고쳐 옮길 수 있다.

8) 아가 8장 2절, 5절, 8절, 11절, 12절

내 사랑하는 자야
어서 들로 나가자
우리가 고벨화 가운데에서
밤을 보내자

19) Garrett/House, *Song of Songs, Lamentations*, 246쪽

20) 「표준」과 「새번역」은 “들” 대신에 “나무 숲 속”으로 옮기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아 8: 2)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는 히브리어로 תלמא(텔람마데니)를 옮긴 것인데, 사랑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장면에서 교훈을 받는다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그러므로 많은 주석가들은 תלמא(텔람마데니)를 תלמא(텔르데니/그녀가 나를 낳다)로 고쳐 읽는다.²¹⁾ 그리스어와 시리아 역본들도 이 부분을 “나를 임신했던 자의 방으로”로 번역하고 있다. 본문 비평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어와 시리아 역본들은 아 3장 4절에 등장하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라는 표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더 나은 읽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본문 비평은 단순한 원칙들만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아가 전체에서 “내 어머니”가 언급될 때는 주로 “나를 잉태한 자, 낳은 자”라는 표현이 뒤따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 3장 4절의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아 6장 9절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아 8장 5절의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의 예들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면 마소라 본문의 תלמא(텔람마데니)는 תלמא(텔르데니)의 오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NRSV도 역시 “the one who bore me”로 옮기고, 각주에 히브리어로는 “my mother”로 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본 절 상반절을 다음과 같이 옮길 것을 제안한다.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나를 낳았던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오리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21) Pope, *Song of Songs*, 653쪽; Fox, *Song of Songs*, 165쪽.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아 8: 5)

“의지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מִתְרַפֵּקֶת**(미트라페케트)는 구약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 단어의 어근이 다른 셈어들이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지지하다, 기대다”로 이해한다. 「개역개정」의 “의지하고”는 자칫 마음으로 신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고”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아가에서 사과나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תַּפּוּחַ**(타푸아흐)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를 사과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로 이해한다.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이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은 본 맥락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히브리어 **לָבַל**(히벨)이 주로 “산통, 산고를 겪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고생한”으로 옮긴 듯하다. 마찬가지로 “애쓴”으로 옮긴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이다. 그러나 우리말 “고생하다”와 “애쓰다”는 본문에서 무엇을 위해 고생하고 애썼다는 것인지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산고를 겪은” 정도로 옮겼으면 더 나올 뻔했다.

그런데 히브리어 **בָּל**(히벨)은 산통과 관련이 있어서 “임신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본 절에서는 **לָבַל**(히벨) 바로 뒤에 “낳다”를 의미하는 동사 **יָלַד**(알라드)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산통을 겪다”보다는 “수태하다, 임신하다”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תַּפּוּחַ**(타푸아흐) 나무 아래는 남자의 어머니가 남편과 사랑을 나누다가 아가의 남자 주인공을 임신하게 된 장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바로 이 나무 아래에서 여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를 깨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남자를 깨운다는 것은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²⁾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아 8: 8)

22) 아가에 대한 포르노그래피적 해석에 대하여는 유 연희, “성서의 성(性):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67집(2010년), 53-74쪽을 참고하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는 번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히브리어의 문법에 맞지 않는다. **אחתינו** (아후트 라누 크탄나)에서 **אחתי** (크탄나/작다)는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אחתי** (아후트/누이)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가 아니고, 동격으로 사용된 명사이다.²³⁾ 이를 우리말로 직역하여 옮기면 “우리에게는 한 누이가 있다. 작은 여자아이다”가 된다. 누이가 작다는 말은 키가 작은 것이 아니고,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그녀에게 아직 유방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아 8: 11)

바알하몬이라는 지명은 구약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다. 따라서 이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읽으려는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바알하몬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본 절에서 바알하몬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바알하몬은 해석에 따라서 “부의 소유자” 또는 “많은 자들의 남편”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두 의미 모두 사실은 부의 상징이자 동시에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렸던 솔로몬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바알하몬은 아마도 역사적 지명이었 다기보다는 아가의 저자가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아가 저자의 시적 표현력과 상상력, 그리고 어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 절의 하반절에 대한 「개역개정」의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라는 말은 솔로몬이 포도원을 포도원 지기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그 열매에 대한 값으로 은 천을 징수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나 본 문장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 솔로몬의 포도원의 열매를 사 먹으려면 은 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 다음 절을 보면 분명해진다. 아 8장 12절에 의하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포도원 지기들도 이백을 얻는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포도원 지기들에게서 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절의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23) Fox, *Song of Songs*, 173쪽.

고쳐 읽으면 좋겠다.²⁴⁾

누구든 그 열매를 위해서는
은 천 개를 가져와야 하리라

3. 나기는 말

본 연구는 아가와 같은 고난도의 히브리어 시문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번역이라는 것은 항상 번역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되는 작업이어서 어떤 특정한 번역이 반드시 옳거나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성서의 번역이라는 것은 검증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모든 새로운 제안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언급된 「개역개정」의 구절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개정 또는 난하주에 다른 번역의 가능성을 언급할 것을 고려할 만한 것들이다.

「개역개정」은 사실 「개역」을 현대어로 고치는 데에 주력한 것이므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면에서 「새번역」과 같은 역본보다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계에서 「개역개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유력한 새로운 번역의 가능성이 있으면 「개역개정」에도 이를 반영하거나 또는 난하주를 통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본 연구를 필두로 성경 각 권의 번역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앞에서 다루어진 구절들을 각각 개정해야 할 다양한 근거들을 따라 나열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4) 한편 팩스(Fox, Song of Songs, 175쪽)는 포도원 지기가 그 열매를 팔아서 은 천 개를 벌어들인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라면 포도원 지기가 은 천을 벌어들여 와서 솔로몬에게 바치고, 솔로몬이 다시 이백을 포도원 지기에게 돌려줘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J. C. Exum, *Song of Songs*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260쪽.

- (1) 우리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할 경우
 1장 5절; 2장 8절; 5장 13절(시적 병행을 고려하여)
 4장 8절(모음을 변경하여 읽음)
 7장 6절; 7장 11절(문맥을 고려하여)
 2장 4절; 6장 4절(다른 셈어를 근거로 고쳐 읽음)
- (2) 더 나은 번역을 위하여 히브리어 자음을 수정하여 읽어야 할 경우
 3장 10절; 7장 9절; 8장 2절
- (3) 우리말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경우
 2장 7절; 8장 11절(오해의 소지가 있음)
 4장 9절; 6장 9절; 6장 12절; 8장 5절; 8장 8절(의미 전달이 약하거나 부정확)
- (4) 일부 단어를 다음 절로 옮겨야 할 경우
 3장 10-11절
- (5) 히브리어 시적 기교를 반영하도록
 2장 7절

4. 참고문헌

- 김 영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서울: 하늘기획, 2010).
- 김 창주, “에로스 동산과 에텐 동산,” 「구약논단」 제 25집(2007년 9월), 120-141쪽.
- 유 연희, “성서의 성(性):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라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67집(2010년), 53-74쪽.
- 이 동수, “호세아 4:4 후반절의 본문과 번역,” 「구약논단」 제 1집(1995년 9월), 233-258쪽.
- Exum, J. C., *Song of Song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Fox, M. V.,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 Garrett, D./P. R. House, *Song of Songs, Lamentat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4).
- Gordis, R., *The Song of Songs: A Study* (Modern Translation, and Commentary),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1954).
- _____, “The Root **לגלג** in the Song of Songs,” *JBL* 88(1969), 203-204쪽.

- Joüon, P.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ranslated and revised by T. Muraoka,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1).
- Keel, O., *The Song of Songs,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lated by F. J. Gais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Murphy, R. E., *The Song of Song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Canticles or The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Pope, M. H.,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77).
- Stoop-van Paridon, P. W. T., *The Song of Songs: A Philological Analysis of the Hebrew Book*, (Louvain: Peeters, 2005).

검색어

본문비평
성경번역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시적 병행
아가

투고일: 2010년 10월 7일
심사일: 2010년 11월 1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일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Translation of the Song of Songs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Seung-II Kang

Lecturer a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Johns Hopkins University Ph. D.

The Hebrew text of the Song of Songs is in a very good condition presenting no serious text critical issues. However, the book contains some fifty hapax legomena along with very difficult words rarely attested in other books of the Hebrew Bible. In addition, the author of the book uses highly sophisticated poetic devices which can hardly be rendered into another language. Therefore, it would be a daunting task for any translator to render such a book as the Canticles into Korean.

While working on a commentary on the Song of Songs, the present author has found that many verses in the translation of the book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are in need of emendation. Some verses in the current translation fail to reflect the original Hebrew's poetic styles or deliver the intended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Other verses are to be revised for a better reading on text critical grounds. This study lists these problematic verses with the author's own translation and provides detailed explanations

for such emendation.

Admittedly,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largely focused on updating old vocabularies in the original *Korean Revised Version*, thus failing to reflect many of the discoveries and development of recent biblical scholarship. Therefore, time is ripe to discuss the issue of revising or improving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It is hoped that this short essay will make contributions to this undertaking and that further studies will examine the translation issues of the individual books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Keywords

Bible translation
New Korean Revised Version
parallelism
Song of Songs
textual criticism